

정부, 4.5조 원+ α 투자하여 전 세계 물류 거점 확보에 나선다

-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2030년까지 40개소로 확대
- 해외 컨테이너 터미널은 공공-민간 협력으로 지분부터 확보 추진
- 해외진출 물류기업을 위해 '검토-투자-안착'의 전(全) 주기 지원체계 마련
- 해외사업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 해양진흥공사 기능·역할 강화

【관련 국정과제】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12월 16일(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러-우 전쟁, 홍해 분쟁 등의 장기화, 그리고 기후 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최근 전 세계 물류 시장에 공급망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 물류기업들과 선사들은 물류 기반 확보, 컨테이너 터미널(이하 '컨' 터미널) 인수**와 함께 수직·수평 계열화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공급망 스트레스 지수:(2021 평균) 0.3→(2022 3) 2.3→(2024 평균) 1.7→(2025. 1.) 2.2→(2025. 10.) 1.9

** 전 세계 10대 주요 물류기업의 최근 5년간 물류센터 면적 증가율 평균 약 25%
전 세계 '컨' 터미널 중 선사(및 계열사) 점유율 : (2018) 32% → (2024) 49%

반면에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물류 분야의 해외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15개 물류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물류센터 중 소유권을 확보한 시설은 8.8%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보니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물류비용의 급상승과 시설의 적기 확보 곤란 등으로 물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해운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해외 '컨' 터미널의 경우, 우리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곳이 현재 7개에 불과하여 한진해운 파산 이전(12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①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②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③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개사 육성을 목표로 삼아 이번 전략을 추진한다.

■ 해외 주요 전략 거점에 물류 기반을 신속히 확보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와 같은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해외 물류 거점 국가는 11개* 국가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교역량, 해외 직접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등이 지원하는 '공공 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2030년까지 40개소(현재 9개소)로 신속히 늘릴 계획이다.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독일, 폴란드, 헝가리 11개국. 단, 물류 공급망 재편에 따라 확대·조정 예정

'컨' 터미널의 경우, 정부와 국적선사,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국적 운행사 등이 참여하는 '(가칭)컨 터미널 확보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자처 발굴과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컨'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터미널의 지분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발판으로 향후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 곡물 등 전략 화물의 경우 해외 벌크 터미널 확보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처를 발굴하면 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 등이 공동사업자(컨소시엄)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1조 원)", "항만 스마트화 펀드(5천억 원)" 등을 통해 국내 노후 터미널의 현대화도 지원하여 에너지, 곡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

■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전(全) 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진출 검토 단계에서는 물류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시장 정보를 공공부문이 우선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로 제공하는 현지 타당성 조사·컨설팅 지원 한도도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분석의 정밀성을 높인다.

투자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운용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의 한도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1조 원 중 3천억 원 규모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를 전담하기 위한 투자처 미특정 기금(블라인드 펀드)으로 조성한다.

*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 1조 원 중 3,524억 원 투자 승인(2024. 10.~202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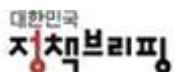
또한, 재정당국에서 조성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지원 가능한 물류 분야를 확대하여 기업의 재원 조달 방식 선택폭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안착 단계에서는 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지 규제 대응, 화주 확보, 인력채용 등 애로사항을 공공부문이 함께 대응하고, 관련 민관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 범정부 물류공급망 지원 체계 구축

정부, 공공기관(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물류기업 등이 분기별로 참여하는 “K-물류 협의체(TF)”를 상시 운영체제로 개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하고, 항만공사별 해외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4개 항만공사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해외 물류 기반 지원기관(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과 화주 지원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우리 화주-물류기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불확실한 물류 환경에 있어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입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 | | | |
|-------|---------|-----|-----|--------------------|
| 담당 부서 | 해운물류국 | 책임자 | 과 장 | 엄익환 (044-200-5750) |
| | 항만물류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길호 (044-200-5757) |



I 추진 배경

- **(공급망 불확실성)** 미국發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글로벌 물류공급망 불안정성 증가
 - * GSCSI(백만TEU): ('21.平) 0.3 → ('22.3) 2.3 → ('24.平) 1.7 → ('25.1) 2.2 → ('25.11) 1.8
- **(글로벌 시장)** 글로벌 물류기업·선사는 물류 인프라(창고·터미널) 추가 확보 및 수직·수평 계열화로 시장 지배력 강화
 - * 글로벌 Top10 물류기업의 최근 5년간 물류센터 면적 증가율 평균 약 25%
 - ** 전 세계 '컨' 터미널 중 선사(및 계열사) 점유율 : ('18) 32% → ('24) 49%
- 주요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전략적 투자 지원
 - * (日) 동남아 대상 물류인프라 투자 확대, (中) 국제물류 지원 정책 발표('24.6)

II 우리나라 해외 물류거점 현황 및 과제

- **(물류 인프라)** 높은 무역 의존도, 생산 거점 해외 이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대비 해외투자 부족, 재정 부담으로 임차 시설이 다수
 - * 최근 5년 FDI 총액 중 물류업(7.2억 달러)은 제조업(189억 달러) 대비 4% 수준
 - ** 국내 주요 15개 기업이 운영 중인 해외 물류센터(735개) 중 자가 비중은 8.8%
- 해외 공동물류센터(302개, KOTRA) 중 우리 기업 운영시설은 27% 불과
- **(터미널)** 해외 항만 터미널 부족으로 공급망 위기 시 물류비 증가, 원자재 수급 곤란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 증대 우려
 -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외 '컨' 터미널* 회복 지연('16년12개→'25년7개), 우리 기업 소유 벌크 터미널을 이용한 자급률도 5% 수준
 - * MSC 74개, Maersk 55개, CMA-CGM 54개 '컨' 터미널 보유 중, 우리와 격차 지속 확대
- **(네트워크)** 기업들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금융지원 기능 강화, 정보·컨설팅 제공, 인력 채용 등 지원체계 구축 희망

➔ 공급망 안정화 및 물류·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물류거점 확보 필요

Ⅲ 추진 방향

비전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구축

| 물류 인프라 신속 확보 |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범정부 물류 지원 네트워크 구축 |
|---|---|--|
| ① (보관) 거점국 중심 인프라 확대 ② ('컨') 先지분, 後운영권 확보 ③ (벌크) 전략화를 공급망 공동 대응 | ① 시장조사·사업성 분석 지원 ② 펀드·기금 등 금융지원 확대 ③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① 민관합동 '원팀' 협력체계 구축 ② 공공부문 해외사업 역량 강화 |
| ◆ (2030 목표) 해외 보관 인프라 40개, 해외 항만 터미널 10개소, 글로벌 Top 50 물류기업 3개社 | | |

Ⅳ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확보 전략

① 물류 인프라 신속 확보

- ① (보관 인프라)** 중요도, 시급성에 따라 거점 국가를 선정*하고, 시장분석 및 투자를 우선 지원하여 보관·처리 인프라 신속 확보
 -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
 - 공공지원 물류센터 확대(現 9개 → '30년 40개), 내륙·철도 터미널 등 지원 대상 다각화, 복합운송 지원 확대 등 해외투자 지원 강화
- ② ('컨' 터미널)** "先시장 진입, 後운영권 확보"로 전략을 설정하고, 시장성 검토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26)하여 쏠단계 포괄 지원
 - (단기) 물동량·국적선사 취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투자처 발굴, 재원 마련을 위해 "글로벌 '컨' 터미널 투자 펀드*" 조성(1조 원)
 - * 해양진흥공사(해진공),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국적선사, 항만공사(PA) 등 참여
 - (중장기) 보유 지분을 바탕으로 해외 터미널 운영을 전담하는 K-GTO 설립, 하역장비 현대화·터미널 확장 등 공공부문 지원
- ③ (벌크 터미널)** 에너지·곡물·광물 등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 터미널 확보 및 국내 노후 터미널 현대화 지원
 - 품목별 수급 분석, 투자처 발굴 등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 구성(26)

② 물류기업 해외 진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① (검토단계) 수요 맞춤형 시장분석 제공, 타당성 조사* 지원 확대, 위험 진단 가이드라인 제공('26~) 등으로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 건당 지원 최고액 : (타당성 조사) 1억 원 → 2억 원, (현지 조사) 4천만 원 → 5천만 원
- ② (투자단계) 물류자산 취득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펀드)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 확대(1조 원 → 2조 원, 해진공)
* 블라인드 펀드(중소규모 투자 신속지원, 자산운용사 위탁) 확대 : 2천억 원 → 5천억 원
프로젝트 펀드(대규모 투자를 안정적 지원, 해진공 수행) 확대 : 8천억 원 → 15천억 원
 - (기금)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물류 분야 지원 대상 확대('25.8)
*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터미널, 물류 분야(통관 대리 등)로 지원 대상 확대
 - (신용) 해외법인에 금융·보증 제공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마련
- ③ (안착단계) 현지 진출 기업의 규제대응, 화주계약, 인력채용 지원
 - 현지 세제·법무 이슈 발생 시 대응 지원, G2G 협력 채널 확보
 - 민관합동 채용박람회 개최 및 해외 인턴십 운영 확대 검토('26~)

③ 범정부 물류 지원 네트워크 구축

- ① (민관·공공 협력) 기업 수요에 맞춰 “K-물류 TF”(‘25~)를 수시 운영체제로 개편, 부처·기관별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을 연계
 - 주요 거점 내 물류센터 확보(BPA, 해진공), “공동물류센터” 지정 및 물류-화주 매칭 등 수출패키지 제공(KOTRA, 중진공)
* 해진공, BPA, KOTRA, 중진공, aT 간 인프라 확보-화주 매칭 MOU 체결('26)
 - 공공 주도로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과 합작투자하는 모델 도입
- ② (공공 역량) PA의 해외사업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별도 법인 설립 추진 검토, 해외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 통합법인 설립을 위해 해수부, 4개 PA 합동 설립 준비 TF 운영('26.上)
 - G2G 협력, 기업 애로 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 공관 기능 확대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전략

전 세계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4.5조원+α 투자로
우리 해운·물류기업, 수출입 기업과 함께 글로벌 물류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비전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확보

| | 2025 | 2030 | 2035 |
|-------------------|------|------|------|
| ① 공공지원 물류인프라 | 9 | 40 | 60개 |
| ② 해외 항만 터미널 | 7 | 10 | 15개소 |
| ③ 글로벌 Top 50 물류기업 | 2 | 3 | 5개사 |

1 물류 인프라 신속 확보

① 전략 거점 내 보관시설투자

- ✓ 거점국가(11개국) 집중지원
- ✓ 해외 보관·처리 인프라 확보
- ✓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대

② 해외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 ✓ 우량 '컨' 터미널 지분투자
- ✓ '컨' 터미널 펀드 조성(1조원)
- ✓ 공공-민간 컨소시엄 구성

③ 전략화물 공급망 안정화

- ✓ 전략화물 모니터링 강화
- ✓ 에너지, 곡물 인프라 투자발굴
- ✓ 선박연료 인프라펀드(1조원)
항만스마트화펀드(5천억원) 활용

2 해외진출 물류기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 | |
|---|--|---|
| <p>1 검토 : 시장조사·사업성 분석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가 시장분석 제공 ✓ 컨설팅 지원 확대 * 최대 1억원 → 최대 2억원 ✓ 리스크 가이드라인 제공 | <p>2 투자 : 펀드·기금 금융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 확대 * 1조원 → 2조원 ✓ 공급망 기금 물류업 지원 ✓ 해외법인에 신용평가체계 정비 | <p>3 안착 : 안정적인 해외 경영활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법무·회계 자문 대응 ✓ 물류기업 화주 연계 강화 ✓ 해외 인턴십 등 채용 지원 |
|---|--|---|

3 범정부 물류지원 네트워크 구축

| | |
|--|--|
| <p>1 공공-민간, 공공부문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물류 TF 확대·개편 ✓ 수출입 지원사업 연계 ✓ 국제 투자수요 발굴 | <p>2 공공부문 해외사업 역량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PA 공동진출 방안 마련 ✓ 해외 공관 기능 강화 ✓ 항만공사법 개정 |
|--|--|

기대효과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 및 해상운송 공급망 안정화

- ✓ 해외 투자 리스크 감소
- ✓ 물류비용 절감
- ✓ 운송 정시성 확보
- ✓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